



EBS가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혼자서 도빈이를 키울 자신이 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잘 키워보고 싶어요.”  
“많이 힘들 텐데?”  
“힘들겠죠. 하지만 오히려 도빈이 때문에 힘내서 잘 살 것 같아요.”

-미혼모라는 현실을 딛고 아름다운 엄마가 된 김보미 씨의 특별한 이야기  
(2012년 1월 14일 EBS 나눔 0700 방송)

# 함께 웃다 hug

전남 광주의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인 <편한집>에서 살아가는 김보미 씨(24세). 보미 씨는 14개월 전 아들 도빈이를 낳았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서툰 연애 끝에 보미 씨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결연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임을 건드릴 수 없었던 아이 아빠는 보미 씨의 결을 떠났고, 가족마저 보미 씨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보미 씨는 집을 나와 혼자 힘으로 도빈이를 낳았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언젠가 아이의 아빠와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보미 씨. 하지만 보미 씨의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아빠는 도빈이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느닷없는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딸이 미혼모가 되는 것을 기뻐 아파했던 보미 씨의 아버지마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할머니를 잃었던 보미 씨 곁에 남은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이픔을 다독이고 있는 보미 씨. 하지만 보미 씨에게는 아들 도빈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주저앉을 수 없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미용학원을 다니고 있는 보미 씨. 보미 씨에게 미용 자격증은 미혼모라는 편견과 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 자신과 아들 도빈이를 지켜줄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미 씨처럼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가는 미혼모들이 많습니다. EBS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위안을 전하는 따뜻한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